용도에 따라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을 하세요

☞ 19면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단란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찰나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포에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질적으로 의학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런 문제가 도달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질과학이면서 하나를 살리려면 하나를 죽여야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그게 아닙니다. 하나도 죽이지 않고, 아까 A형의 피를 넣는다 이랬죠? 그러면 피를 좀 얻어서 넣을 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 형제라면, 내 피도 A형이라면 A형에 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마음 도립니다. 요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요게 한마음인데, 그 모든 약초나 뭐, 산에 있는 무정물, 생물, 동물이 전부 약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도 A형에서 피를 뽑아서 바로 A형에 넣어 주면 그게 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감자 물이나 뭐, 이런 거를 먹으라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마는 그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액을 피 뽑듯 뽑아서 자연적으로…, 이 지금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맡겨 놓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 병이 어떤 건지 벌써 알고,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거기에서 바로 직접, '그 물질이 어떠한가. A형인가.' 하고선 그것이 전력이 오듯 스스로 와서 여기에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포기 하나도 같이 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는 어떠한 식물이나 어떠한 동물이나 어떠한 생물, '생물' 하면 다지마는 어디에서든지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자동적인 바로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 보배는.

그래서 '주인공이다' 하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체가 없기 때문에 찰나 생활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의 위력은, 그렇게 찰나찰나의 용도에 따라서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가 A형이라면 여기에서 A형으로다가 뽑아내서 여기다가 기를 넣어 줄 수 있고, 또 모든 병에 적절하게 약을 써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 불가사의한 일을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인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몰라선 안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부처는 어느 신이 내려오고, 무슨 어느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부처요, 모르면 중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다. 같이 항상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지, 그걸 알면 즉 부처다 이거야. 그리고 마음을 내서, 이를테면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법신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법신이자 모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것이 다 용도에 따라서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 자기한테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나가니까. 천백억으로 화해서 다 이렇게 나가니까. '천백억이다' 하는 것은 숫자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공부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불가사의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족히 이것을 하지 않고 간다면 영원토록 윤회에 말리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모든 것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끝 간 데 없이 가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대로 그것이 유전을 통해서 자식들 대에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는 위대로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이치가 되고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조상들의 은혜를 갚고, 길러 준 은혜를 갚고 또 뼈다귀와 살을 준 은혜를 갚고, 그렇게 하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그 인과로 만난 악업 선업들을 다 교화하고 보살로 만들고, 또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한테도 뿌리를 도와줘서 가지와 이파리가 싱싱하고, 대대손손 자식을 낳아도 이파리가 싱싱하고 가지가 싱싱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문제죠. 이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생각에서 엄청난 게 벌어지고 한생각에서 엄청난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부처님 법이냐? 아니다. 그럼 무쌍히 벌어지는 게 법이냐? 아니다. 그건 자유자재하는 거다. 그냥 내가 그대로 하고, 지금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가는 그 자체의 뜻을 알면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를 한 번쯤 관찰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형성시켰으니까 자기 죽고 사는 것도, 자기가 2세들을 길러 놓고 또 위로는 모시고 그럭하고서 일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선 자기 몸뚱이를 벗어도 괜찮게끔, 자기가 주인공에서 형성이 됐으니까 거기다 모든 걸 놓고,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관해서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 탓이지…. 그런 거를 본인은 그렇게 생각도 안 했겠죠. 본인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 그게 욕심이냐?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보살행입니다. 가정을, 자녀들을 그냥 놔두고 가는 그것도 우리가 건져 주는 일이 못 되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모두 희생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하는 것만치 해서 자기가 가도 괜찮다 할 때 갈 수 있게끔 자기도 한 번쯤은 관해 보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공부를 하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한번 관해 보고, 한번 실험하고, 이렇게 통해 보고, 지켜보고 이러는 연구가 없이는, 여유가 없이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수 없다면, 시험해 볼 수 없다면, 실천에 옮겨 볼 수 없다면 여기 와서 이 공부는 해서 뭘 합니까? 듣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학식적으로 이 머릿속에 넣었다가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두뇌를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다 계합이 돼서 한번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서 딱 놓을 때는 거죽으로 현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한번…. 우리는 항상 지켜봅니다.

내가 소심한 거 같지 않아도, 다 놓고 살지만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들러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모두가, 풀 한 포기도 나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이 도리를 어떻게 실험해 보고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또 풀 한 포기도, 어떠한 벌레 하나도, 나무 한 가지도 내가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내 어찌 이 도리를 알았으리까? 그러니 내 스승이자 바로 내 벗이요, 내 도반이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부처 되려고 이날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여러분이 이 뜻을 잘 아셔서 말도, 곧은 이 마음,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도리를 아신다면 너그럽고 자비하게 넓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아무리 속상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한번 안으로 굴려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한 걸음을 떼어 놓더라도 한번 안으로 굴려서 여유를 가지시면 한 발을 떼어 놓을 때 백 발 뗀 거보다도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경설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백팔배를 한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고 그래서 일이 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외워서 잘 통해서, 아침마다 염불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슴에 닿고 실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면서 겪어 보고 실험해 보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이 되고…. 그러니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관해 보고 관해 듣고 말하시고 이렇게 사시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 세, 음! 허허,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빼놓고 무슨 관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빼놓고는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표도 없습니다. 지장이라는 그 상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상표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에서도 벗어나서 진짜 자유자재성을 가지고 찰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만 되지 죽어서도 이렇고 지금도 슬슬 냄새나 맡고 그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서 항상 고통을 받고 끝 간 데 없이 유전과 그 모든 것의 고통을 받는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체가 참,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벌어지고 일이 생기고 얽히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두가 가설이 돼서, 세포에도 가설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 몸에도 항상 같이 가설이 됐다. 이 우주와도 가설이 돼 있고 이 지구와도 가설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거는 지구만 가설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피 좀 달라고 그럴 때 피는 자동적으로 여기 기를 넣어 줘.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아서 응용하신다면, 그대로 자기를 자기가 관세음보살로 만들고 지장도 만들고 약사보살도 만들 수 있는 자기가 되면 이게 바로 금강신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그대로 자기를 자기가 관세음보살로 만들고 지장도 만들고
약사보살도 만들 수 있는 자기가 되면
이게 바로 금강신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2월 4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